

# 회원사 동향

MEMBERSHIP TREND

## LG산전(주), 기중절연 고장구간자동개폐기 개발

LG산전(주)(대표 김정만)이 기중절연 고장구간자동개폐기(ASS) 개발에 성공, 본격 출시한다.

이번 신제품은 신규격 IEC 60265-1을 적용한 630A 기중부하개폐기(LBS) 프레임을 그대로 이용, 제품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으며, ASS 컨트롤러를 자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설계했으며 제품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환

경시험을 실시, 무결점 제품을 추구하며 직선굴절형 구동구조로 차단시 아크의 분출 각도가 설치면 대비 50도 이하로 상간거리를 300mm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LG산전은 LBS는 출시한 지 1년 만에 시장점유율 25%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안전성과 신뢰성, 편리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주)비츠로테크, 고용량 밀폐형 전원절환개폐기 특허 획득

(주)비츠로테크(대표 양흔)는 고용량 밀폐형 전원절환개폐기가 특허를 획득했다

이 설비는 장시간 사용시 먼지 등 이물질이 통전부에 들어가 절연성능을 떨어지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했다는 게 특징이며 통전부를 플라스틱 절연물로 밀폐시켜 신체접촉에 따른 감전사고 가능성도 없었다.

각 상에 힘을 전달하는 절연 투입암이 접촉자를 구동시켜 모든 상이 일정한 압력을 유지와 성형물 케이스를

암·수로 구분, 전원 통전부의 부품이 내부에서 조립되도록 했다. 암 성형물 케이스에는 평소 전원이 공급되는 상용전원 단자와 비상시를 대비한 비상전원단자, 부하측 단자 한편에 붙어있는 한 쌍의 가동접촉자가 각각 접점핀을 중심축으로 회전토록 배치했다.

이 설비는 고용량 전원 절환 개폐기(ATS), 바이패스 전원 절환 개폐기(BIS), 중첩 전원 절환 개폐기(CTTS)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LG전선(주), 파키스탄 지역통신사업자로 선정

LG전선(주)(대표 구자열)이 최근 파키스탄 정부가 지정

한 지역통신사업자로 선정됐다.

파키스탄 정부는 국영 통신회사인 PTCL(Pakistan Telecommunication Company Ltd.)에게 독점 제공했던 통신사업권을 장거리 통신사업자(Long Distance Interconnection)와 지역 통신사업자(Local Loop Carrier)로 나눠 통신사업을 자율화,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LG전선이 16개 지역 통신사업권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FTTH(Fiber to the Home/광가입자망)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망 수주로는 처음으로 총 1500만 달러에 이르며 1차로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올 연말부터 광통신망을 구축해 2005년 하반기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LG전선은 이번 사업에 광케이블, 광전송장비 및 설계·시공에 이르는 FTTH 관련 토탈 솔루션을 턴키로 공급하게 되며 광케이블은 FTTH망에 가장 적합한 ABF(Air Blown Fiber)를 사용할 예정이다. ABF 설비

공법은 미세 광섬유를 공기압으로 불어 설치하는 것으로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LG전선이 지역 통신사업권을 딴 GTR(Gujranwala Telecom Region) 지역은 약 500만명, 100만가구의 파키스탄 남부 6개 도시를 포함하고 있으며 16개 지역 통신사업 영역 가운데 국제 비즈니스 등 상업지구가 밀집된 메이저급 지역이다.

한편, LG전선은 GTR지역 통신망 설치 경험과 기술력으로 나머지 15개 지역 통신사업자들의 선로 구축에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데 현재 3곳의 지역 통신사업권자와 구체적인 수주 협의를 하고 있으며 파키스탄은 인터넷 보급이 저조하고 전화보급률이 매우 낮은 국가로서 향후 FTTH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사업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 (주)광명전기, 개폐기시장 신규 진출

수배전반 전문 중견기업인 (주)광명전기(대표 조광식 이재광)가 지중용가스절연개폐기(GLBS)를 신규 개발, 시장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매출 400억원대인 광명전기는 GLBS에 대한 한국 전기연구원 개발시험에 합격하고 최근 한전 공급유 자격자로 등록, 단가계약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중국 북경시험소에서 중국 규격에 따른 개발시험을 실시,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명전기의 이번 GLBS 개발은 수배전반 전문업체의 위상에서 탈피, 전력기자재 단품 생산으로 사업을 다각화함으로써 전력기기 종합회사로 발돋움하려는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광명전기는 이번 GLBS 이외에도 가공용가스절연부하개폐기(PGS), 민수용 큐비클형가스절연개폐장치(C-GIS) 등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 동방전기공업(주), 24KV급 건식 변압기 개발

동방전기공업(주)(대표 양태권)이 그동안 국내에서 제작되지 못했던 24KV급 건식변압기 H종을 미국 듀폰사의 새로운 절연재를 이용하여 개발 완료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24KV급 건식변압기로는 고체절연 건식 변압기가 거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나, 이 고체절연 변압기는 폐기시 환경오염 및 자원 재활용에서 거의 불가능하여 향후 많은 환경오염문제



## 회원사동향

와 자원낭비를 초래하였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환경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생산제품의 설계부터 제조, 사용후 폐기 시까지 환경정책에 입안하여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

으며, 동일 용도의 제품중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상대적으로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환경표시제도를 통하여 생산을 장려하고, 세계 각국이 제품을 수입시에도 환경친화적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 (주) 우강산업전기, 미얀마에 변압기 붓싱 수출 계약

변압기 붓싱 전문제조업체인 (주)우강산업전기(대표 이병길)가 미얀마의 양곤변압기사와 매월 20피트 콘테이너 한 박스를 납품하기로 계약했다

이번 계약은 미얀마 양곤변압기사는 계약체결을 위해 방한한 바 있으며 수출하게 되는 변압기 붓싱은 기존 사형식의 단점을 극복한 황동단조식으로 외산에 비해 가격이나 품질면에서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미얀마의 변압기 회사들은 대부분 싱가포르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나 유럽에서 주로 변압기 부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출계약은 앞으로 해외시장을 넓힐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미얀마 외에도 인도네시아 변압기 제조업체와도 수출을 타진중으로 내수 침체를 감안,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일진전기(주),케이디파워(주), 전력신기술 신규 지정

일진전기(주)(대표 홍순갑)의 22.9kV 가공 배전선로의 차세대 전력케이블 ACSR/AW-TR/OC(트래킹 억제형 수밀 알루미늄 피복 강심 알루미늄 절연전선)와 케이디파워(주) (대표 박기주)가 ‘수배전설비의 예지운전 및 정보통합화 기술’이 산업자원부로부터 전력신기술로 선정됐다.

일진전기(주)의 ACSR/AW-TR/OC는 현행 범용 기준인 ACSR/AW-OC(알루미늄 피복 강심 알루미늄 절연전선)에 비해 절연성능이 50%, 내트래킹 성능이 100% 이상 향상된 제품으로 전력공급 신뢰성 강화는 물론 케이블 수명을 2배 이상 연장시킨 제품이며, 케

이디파워(주)의 ‘수배전설비의 예지운전 및 정보통합화 기술’은 전력품질 분석 알고리즘 및 퍼지 엔진을 이용한 수배전설비의 예지운전기술과 정보통합화기술로서 수배전반의 성능을 한 단계 끌어 올린 첨단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전력신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했거나 외국 기술을 대폭 개량한 신기술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에 대해 산자부가 인증해 주는 기술로서 97년부터 시행, 현재까지 22개 품목이 선정됐다.

